

## 일본기업에서의 인턴실습프로그램 IT 참관 후기

- 일한재단의 2017년도(3기) 「기업현장인재육성사업(일본기업에서의 인턴실습 프로그램)」이 시작되었으며, 오리엔테이션에 한국 학생 52명이 참가
- 학생들은 일본기업에서의 인턴 실습을 통해 업무 외에 일본의 조직문화, 일본기업의 한국사회에 대한 공헌활동 등을 경험할 예정

### ① 일본기업의 한국청년인재 수요 확대

- 한일산업기술협력재단의 카운터파트너인 일한산업기술협력재단이 추진하는 기업현장 인재육성사업(일본기업에서의 인턴실습프로그램)의 오리엔테이션이 2017. 6.29일 개최되었음.
- 기업현장인재육성사업이란 한국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「육성형 인턴 실습 프로그램」으로서 올해 3년차를 맞이했음.
- 2017년은 466명의 응모가 있었고 그 중에서 180명을 면접, 최종적으로 52명이 인턴으로서 30일간 한국 내 일본기업(29사)에서 근무하게 됨.
- 과거의 프로그램이 한국 학생들로부터 호평을 받았으며 취업뿐만 아닌 많은 것을 배웠다는 소감이 나왔고, SJC(서울재팬클럽) 등의 협력으로 2017년도는 근무 기업이 대폭 증가했으므로 인턴 학생들을 많이 늘릴 수 있었음.
- 2015년은 기업 8사에 인턴 학생이 20명, 2016년은 기업 9사에 인턴 학생이 16명이었지만 2017년은 기업 수 및 학생 수가 약 3배로 증가하였음.
- 그 만큼 한국 청년 인재에 대한 일본기업의 관심과 기대치가 높아졌다는 것은 2년간의 사업 성과라고 볼 수 있음.
- 또한 응모한 학생 수도 2배 이상이 되는 등 한국 청년들의 일본기업에 대한 관심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음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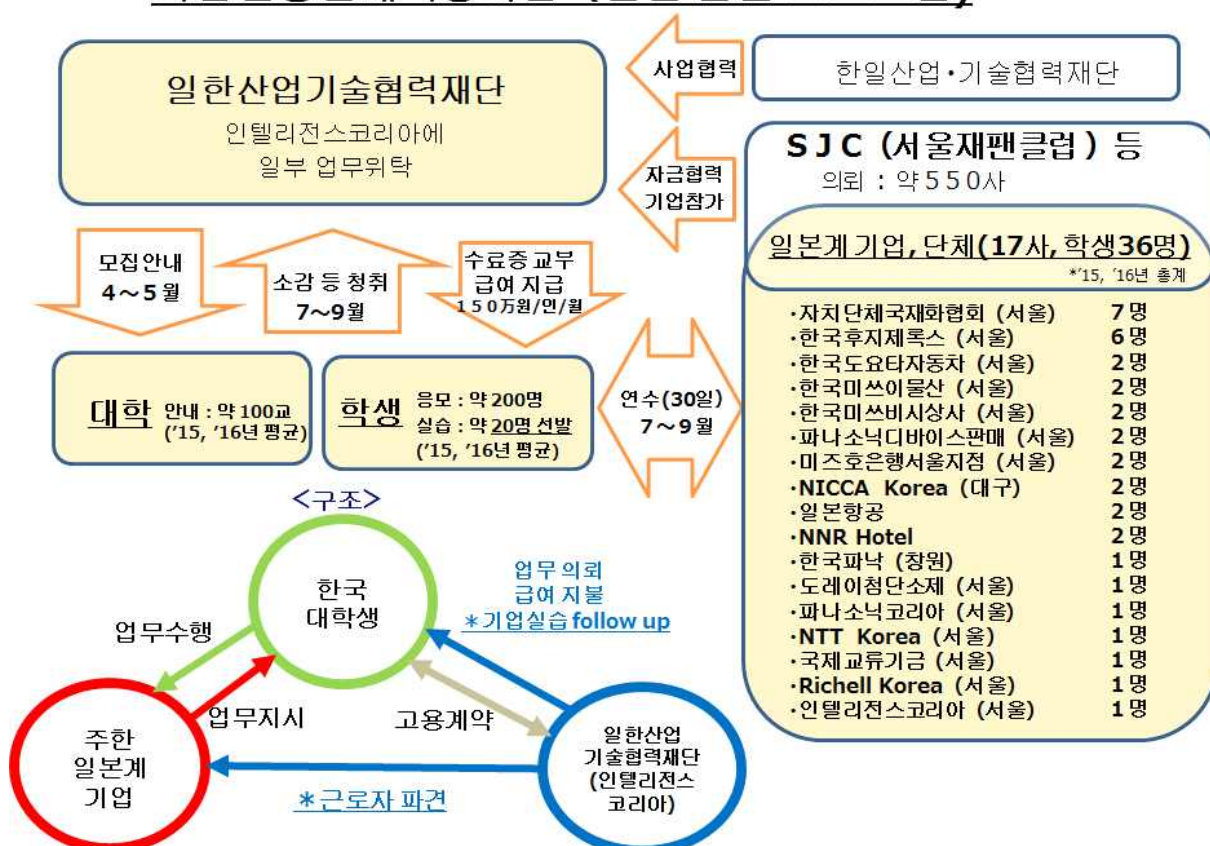
### ② 기업현장인재육성사업의 시스템

- 일한재단의 인턴실습프로그램은 인력이 부족한 부서에서 업무를 시키는 「아르바이트형」 인턴십이나 입사를 위한 인물평가에 중점을 둔 「채용 평가형」 인턴십이 아닌

인턴 학생을 기업의 일원, 직장의 동료로서 받아들이고 실제와 같이 선배 직원이 교육하는 「인재육성형」 인턴십임.

- 이 프로그램을 통해 사회인으로써의 마음가짐이나 기업의 활동에 대해서도 배울 수 있는 점이 특징이라고 할 수 있음.
- 기업현장인재육성사업의 목적은 취업 준비를 하는 한국 학생들이 일본기업에서의 실무 경험을 통해 기본적인 업무 진행방식이나 사회인으로서의 마음가짐 등을 배우고, 개인적인 능력을 육성하는 것임.
- 또한 일본기업의 특징인 인재육성이나 팀워크와 같은 일본기업의 문화를 느끼고 재한 일본기업의 CSR(사회공헌)활동을 이해함으로써 일본에 대한 이해를 깊게 하는 것도 목적의 하나임.
- 이 사업은 취업 알선이 목적은 아니지만 기업 입장에서선 실무를 시켜보고 우수한 인재이면 특채를 고려할 경우도 있을 것임.

### 기업현장인재육성사업 (인턴 실습 프로그램)



자료 : 일한산업기술협력재단 제공

- 학생들은 일한재단의 본사업 업무제휴기관인 인텔리전스코리아를 통해 일본기업에 배정되어 7~9월 중에 30일간 인턴 실습을 수행함.
  - 기업 배정은 면접 시의 학생의 희망과 일본기업 측의 인재 니즈를 인텔리전스코리아가 매칭시키는데 오리엔테이션에 참가한 학생들로부터는 희망에 딱 맞는 기업에 배정되었다는 코멘트가 나오는 등 매칭이 잘 이루어진 것으로 보임.
  - 실습 기간 중에는 일한재단과 인텔리전스코리아가 모든 인수 기업을 방문하여 인턴 학생의 동향을 관찰, 또는 학생과의 개별면담을 실시하고 실습을 지원.
- 모든 인턴 실습이 종료한 후 수료식이 개최될 예정이며, 수료식은 실습의 성과를 공유하는 「팔로우업 연수회」와 같이 진행될 것임.
  - 단순한 수료증의 수여뿐만 아니라 실습을 통해 얻은 교훈 등을 그룹 토론으로 정리하고 성과를 발표함으로써 다른 학생들과 경험을 공유.
  - 학생들은 다른 기업의 분위기도 알 수 있기 때문에 향후 취업활동에서 도움이 되는 정보를 많이 얻을 수 있다고 할 수 있음.
- 과거에 이 프로그램에 참여한 학생들로부터는 긍정적인 평가 및 코멘트가 많이 나왔으며 이러한 목소리가 반영되면서 금번 3기 프로그램으로 이어졌음.
  - 기업현장인재육성사업은 일한재단이 일본정부의 예산으로 추진하고 있으며, 또한 한국에서 활동하는 일본기업들 즉 학생을 인수하는 일본기업의 협조가 없으면 진행이 어려움.
  - 그래도 3기 프로그램에서 학생 수와 인수 기업 수를 늘릴 수 있던 것은 1~2기 수료생을 비롯하여 협력 기관 등에서 많은 도움이 있었기 때문임.

### ③ 2017년도 인턴실습프로그램 오리엔테이션

- 오리엔테이션 내용은 ①사업의 목적과 기업 실습에 대한 유의점 설명, ②파견 계약의 절차와 구체적인 근무내용·근태절차·기업 룰 등의 설명, ③실습생이 개개인의 목표를 명확화, ④실습생 간의 교류 등으로 구성되었음.
  - 오리엔테이션에는 사업 관계자 외에 일본대사관 상무관, 일본 언론인 등도 참석하여 일본 측에서 이 프로그램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었음.

- 프로그램 개발에 주력한 일한경제협회의 치기라 상무이사는 「기업현장인재육성사업」의 목적과 실습에 대한 마음가짐에 관하여, 우선 실습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(1)건강관리, (2)직장 동료로부터 신뢰를 얻을 것, (3)구체적인 목표를 세워 행동할 것 등 3가지라고 강조했다.



<일한경제협회 치기라 상무이사>

- 특히 「신뢰」는 일본의 회사생활에서 중요시되어 있다고 하면서 “주어진 대로 일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일을 잡으려 가는 자세를 보일 필요가 있다”고 말했다.
- 또한 일본에서 많이 쓰는 용어인 「PDCA: Plan, Do, Check, Action」을 설명하여 “좌표축을 갖고 본인의 위치를 확인하면서 목표에 도달할 수 있도록 방향을 보고 행동할 것”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.
- 치기라 상무이사는 또 이러한 내용을 「밝고, 즐겁고, 힘차게」라는 문장으로 표현했으며, “긍정적인 사고방식으로 주체성과 행동력을 갖고 업무에 임했으면”이라고 학생들을 격려했음.
- 오리엔테이션에 참석한 아리마 일본대사관 상무관은 실습생들에게 “(1)「학생」과 「사회인」, (2)「한국」과 「일본」이라는 2가지 차이 때문에 고생할 수도 있지만, 이 차이를 오히려 즐기면서 일했으면 한다.”고 조언했음.
- 또한 세키구치 일본상공회의소 소장은 “1~2기생을 인수한 기업에서는 학생에 대한 기대가 커지고 있기 때문에 열심히 할 필요가 있다”고 격문을 띄웠음.



<설명을 듣는 학생들>



<자기소개, 포부 발표>



- 금번 프로그램에는 남학생 22명, 여학생 30명이 참여했으며 과거 2년에 비해 남학생의 비중이 증가했음.
- 또한 이공계나 경영학 등 전공이 일어일문이 아닌 학생도 많았고, 금번 모집에서는 일본어가 필수가 아닌 “일본어 또는 영어로 업무 수행이 가능한 자”가 대상이었기 때문에 보다 다양한 인재가 모인 것으로 보임.
- 인턴 학생들은 자기소개와 포부, 배치 기업에 관한 소개를 하는 시간을 가졌는데 이미 구체적인 목표를 세우고 있는 학생이 많이 있었음.

- “30일간이라는 짧은 기간이지만 많은 것을 배우고 싶다.” “일본기업의 비즈니스 노하우, 경영전략에 관심이 있다.” “향후 취업 준비를 하는데 이 인턴의 경험을 활용하고 싶다.” 등 학생들은 긴장하면서도 적극적인 마음가짐을 발표했음.




<기념촬영>

- 일본어를 전공한 학생들로부터는 “일본기업에서 일하는 것이 꿈이었다.” “어학을 활용할 수 있는 업무를 하게 되어 기쁘다.” 등의 코멘트가 나왔음.
- 학생들은 본인이 일하게 된 기업에 대하여 꼼꼼하게 많은 조사를 해왔고, 어떤 기업이고 이 기업에서 무엇을 배우고 싶은지에 대해서도 발표를 잘했음.
- 학생들은 같은 기업에서 여러 명이 근무하는 경우도 있고, 한 명만 들어가는 경우도 있지만 이야기를 나누면서 교류를 깊게 했음.
- 이 자리에 모인 모두가 한 마음으로 “다 같이, 프로그램에 합격하지 못했던 사람들, 나아가 4기 후배를 위해 열심히 하고 싶다”고 의욕을 보이는 것이 느낄 수 있었음.

#### ④ 평 가

- 금번 프로그램은 예산을 준비한 일본정부, 학생 인수에 협력한 일본기업, 사무국인 인텔리전스코리아 등의 협력으로 실현했지만, 가장 중요한 것은 과거에 참가한 1~2기 학생들이 열심히 실습에 참여하고 많은 것을 배워 성장한 모습을 보였던 것임.
- 학생들이 이 프로그램을 유용하게 활용하고 능력을 향상시키면 기업현장인재육성사업도 지속적으로 운영할 수 있을 것이라고 치기라 상무이사는 언급했음.

- 한일 관계가 아주 좋다고는 할 수 없는 현재, 이렇게 많은 학생들이 일본기업에 관심이 있다는 것은 향후 한일 관계 개선에 긍정적으로 작용될 것으로 예상됨
- 일본에 관심이 많은 해외 청년들은 애니메이션, 패션, 음악 등 문화적인 것을 선호한다는 이미지가 있지만 금번 프로그램에 응모한 학생 중에는 일본어는 잘 못하지만 일본기업의 경영을 배우고 싶다는 사람도 몇 명 있었던 것이 인상적이었음
- 일본기업에서의 인턴 실습 경험이 학생들의 취업에 기세가 붙는다는 단기적이고 마이크로한 목적뿐만 아닌 한일 관계 개선, 일본기업의 글로벌 인재 확보, 한일 경제협력의 촉진 등 보다 장기적이고 큰 틀에서의 시너지 효과도 기대할 수 있는 것으로 보임.
- 이와 같은 인턴실습 이외 한일산업기술협력재단에서는 일본과의 한일협력사업을 통해 구축한 일본 협력 네트워크를 통해, 한국의 청년인재를 채용코자 하는 일본기업을 발굴하여, 우리 청년인재와의 1:1 채용면접을 통한 일본기업 취업 매칭사업(채용상담회 개최)을 추진 중임.
- 한국 내 청년실업의 해소 및 일본과의 인적교류 확대를 위해 2015년도부터 신규사업으로 추진하여 2016년까지 채용상담회 5회를 개최하여 국내청년인재 93명이 일본기업에 취업하였음.
- 2017년은 아래와 같이 2번의 채용상담회를 개최할 예정임.
  - (1) 유관기관 협력 채용상담회
    - 일시/장소 : 2017년 9월 28일(목)/ 롯데호텔서울(소공동) 3F
    - 규모 : 한국 청년인재 채용희망 일본기업 30~35사 초청(1:1 취업면접)
  - (2) 인재매칭 전문회사(인텔리전스코리아) 협력 채용상담회
    - 일시/장소 : 2017년 9월 23일(토)/ 서울대학교
    - 규모 : 한국 청년인재 채용희망 일본기업 15사 초청(1:1 취업면접)
- 한일 양국 재단은 한국의 청년 실업 문제와 일본기업의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서로 Win-win하는 관계 구축을 바탕으로 두고 앞으로도 협력해 나갈 것임. 

#### <참고자료>

일한산업기술협력재단 홈페이지

한일산업기술협력재단(2017.6.27.) “일본의 외국인 노동자 취업 현황” 일본경제리포트 No.514